인천 : 1차 (컷+7.33 / 68 > 교육학 : 15, 전공: 53) / 2차 93.49 (실기 27.33 + 실연 19.33 + 면접 46.83)
총 161.49 (컷 + 11.69)

많이 높은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합격수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사람도 합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 라는 용기를 불돋아주는 합격수기
※ ① 임용공부 제로베이스 or 교직과정으로 미술교육론이 낯선 분들
② 인천지역을 고려하시는 분들 *(인천 자료 넘 없어서 슬펐..어요.)*
③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불안하지 않은 분들 / 초수에 서브노트 만드실분

처음에 혼자 공부할 때, 임용관련 정보 조언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독서실도..노량진 직강도 혼자다니다보니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 08	- 학부졸업 + 교직 + 교생(초과학기)으로 가을졸업, 교원자격증 취득 - 교육대학원 진학준비, 합격 - 한국사 자격증 취득
~ 2020 .12	- 교육대학원 1학기 수강 + 조교 > 휴학 후 1년 올인을 결심 (1년안에 돌아오길 결심..ㅠㅠ) - 11월~12월 약 2달간 소묘 실기(홍대) 주1~2회 - 다양한 강사의 기본이론을 미리 들어보며 임용시험의 감을 잡음 (이해는 안된상태) (학부때 임용공부 하나도 안함. 작업함 / 미술사는 학예사 공부한다고 접해본적있으나 전문적이지X) (강사별 장단점 파악하기) - 위상 기본이론 1~4월 기본이론 2배속 몰아듣기로 2주~3주 완강 (판서자료 완성)
2021.1~ 2022.2	- 임용 1년 올인 및 합격

월별스케쥴(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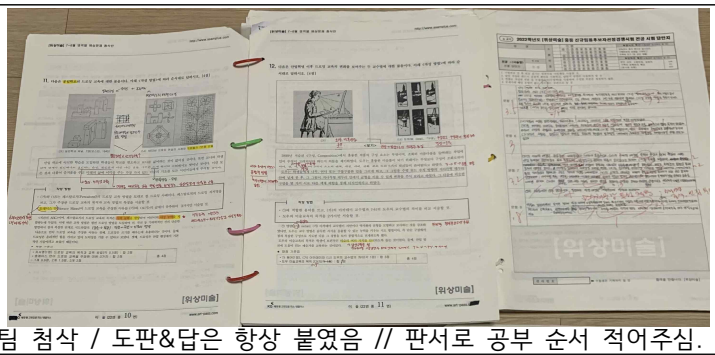
1~4월 : 스케쥴은 다른분들이 합격수기에 올리신 장지연 교수님의 공부패턴에 맞춰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방법은 과목별로 제각각이라 아래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1-2 **목표**: 기본이론 다 듣기 / 보충하기로한 강의도 완료하기 / 단권화)*
*(3-4 **목표** : 심화이론 듣기<중복,아는 거 스킵함. 표현, 서미 2배속> : 작년에 조금 들어놔서*
단권화 돌려가면서 보기, 내용추가하기 / 작년도 문제 중고 구해서 문제와 이론의 출제경향 파악 + 단권화)

5~8월말 : 직강으로 모의고사 시험치고, 매 주 성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직강에서 짜준 스터디원과 넷이서 5-6월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 희소 전국모의고사 참석 후, 전국 석차 받아봄> 희소전국모의고사 강추!)
> 실전 감각을 위해 모의고사시험은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시험처럼 치기 위해 9시 시험시작전 6-7시즈음 노량진 독서실에 가서 직전시험공부를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치기전까지의 대기시간이 긴 편입니다. 이런식으로 실전감각을 기를겸 + 꾸준한 첨삭을 받아보고자 직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 5-6월에 직강에 나가서 받은 충격과, 문제풀이의 과정이 11월시험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꼭 1:1첨삭 받아보시고, 방향을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6월 공부가 11월에 그대로 갑니다.
+5-6강의 7주차 첨삭에서는.. 21등. 모고는 항상 그 언저리즈음 받음. 나중에 11월 될수록 모고 점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58점 받고 가서 비슷하겠다 싶었는데 웬걸.. 단답형 다나감. 근데 위상모의고사는 첨삭을 '제때' 낸다면 자신의 위치파악에는 딱.

*(**5-6 목표** : 단권화 반복하며 눈에 익히기 / 6월말 서브노트 옮기기 ~ 7월 완성 / 위상 5-6직강, 기출분석 / 필독서 작가분석 스터디 / 장지연샘의 기출변형문제-기출수업 무한복습 > 날도 따뜻하겠다.. 이 때 미친듯이 공부한 것 같아요)*
*(**7-8 목표** : 문풀all / 문풀 서브노트에 추가 / 서브노트 무한반복 형광펜 공부법 시작 / 필독서 추가하며 무한 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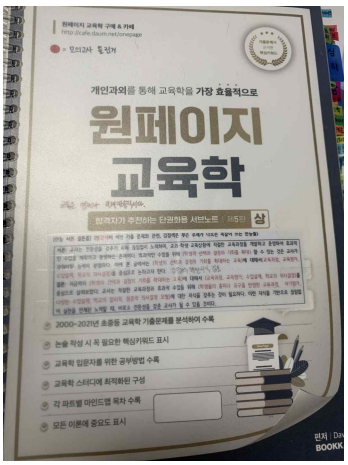
위상팀 첨삭 / 도판&답은 항상 붙였음 // 판서로 공부 순서 적어주심. 그대로 하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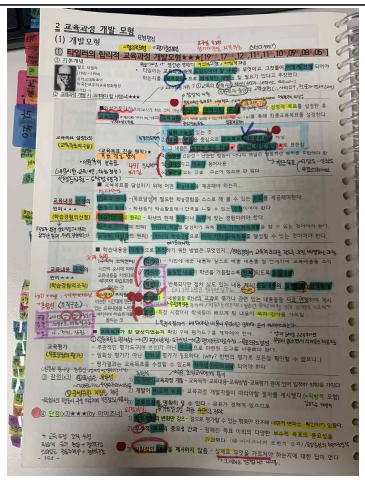
9-11시험까지 ..> 서브노트 무한돌림, 자료를 늘리지 않음 / 2주전 전체 돌려보며 키워드북 쓰면서 공부
이론을 보고 문풀을 하는 베이스를 깨지 않으려 노력
***9-11목표** : 기존에 보던 필독서 + 강사님모의고사+ 나머지 자료 용어사전 분석 등 활용*
서브노트 무한돌림, 하루 패턴 깨지 않기

교육학

만능서론 결론틀만들어서 암기해서갔습니다. 그 사이에 문제 끼워넣기방식으로 서결론은 빨리 썼어요.
ex) 교사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교과, 학생, 교육상황에 적절한 교육과저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
~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때, 비로소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페이지 교육학 카페에 참고자료 多

강의 : 김현 교육학 강의 풀패키지 (커리 그대로 따라감/ '기출5-6분석 잼'중 객관식은 조금씩 스킵 유동적 수강)
공부 : 거의 **'원페이지교육학'**으로 공부하였습니다 > 원페이지 교육학은 관련 다음카페에 공부방법이 많이 수록됨
(교육학의 단권화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거의 이 원페이지 서브노트만 달달 외웠던 것 같음)
모의고사는 꾸준히 첨삭받았고, 7-8월이후에는 모의고사 연습량을 늘렸습니다. (모고자료도 작년에 물려받아 참고해보긴 하였음)
교육학은 늦어도 5월전에 모두 이해를하고, 그 이후에는 모고 무한반복, 암기 무한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권화, 서브노트

저는 단권화와 서브노트를 했습니다. 저는 자료가 흩어져있는 것을 보면, 너무 불안하기도 했었고.. 이 방대한 자료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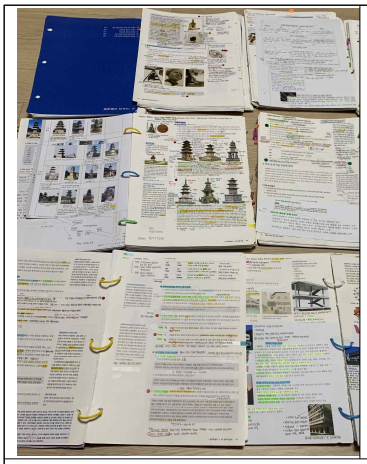
하나로 정리하고 싶어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격상) 그래서 꼭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같은 분들을 위해 서브노트 제작과정을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제작이 주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조절을 하였습니다..!! 자료만 한없이 넣어놓고 보지 않으면 서브노트는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는 회독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브노트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합격하신분들도 많으니, **'초수에 서브노트를 만드는 경우'**로 봐주세요. (서브노트 자료는 인스타에서 무료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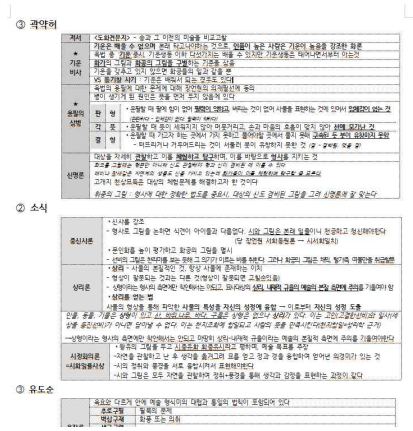
제작이유 (단권화나 서브노트) : **첫째,**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한 권으로 압축해야 회독 수를 높이면서도, 내가 까먹은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파트가 어디인지 찾아보기 쉬웠습니다. 예를들어 용어사전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각각 따로 관련자료를 보는 것보다, 그 단어를 보고 해당영역의 서브노트에 추가하다보면, '아! 내가 이부분의 단어이해가 부족했구나.. / 이 영역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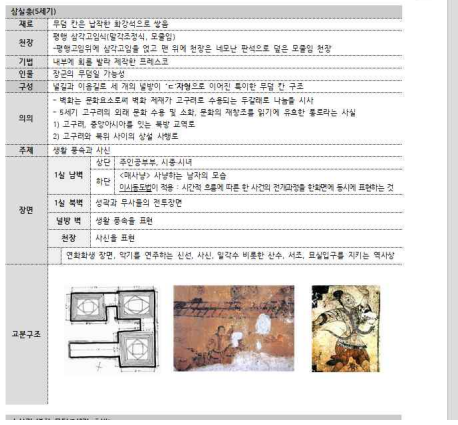
둘째, 7-8 or 9월부터는 전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시작됩니다. 자료가 넘쳐나다보면.. 욕심만 늘어나고 마음만 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풀을 풀고 서브노트에 추가한 뒤, 따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치고, 해설을 듣고, 복습시간을 가지면서 서브노트에 약 추가하고 나면, 남은 주간은 이것을 추가한 서브노트 자체를 전체 1회독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거칠수록, 회독수는 높아지고, 문제풀이를 복습하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대신 위상 5-6 문풀자료는 계속보았습니다> 장지연 선생님 공부방법대로 밀리지 않고 복습했습니다.)

각자 공부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종과정까지 회독 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안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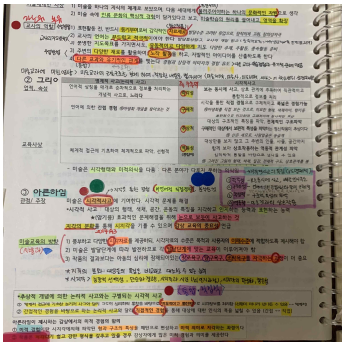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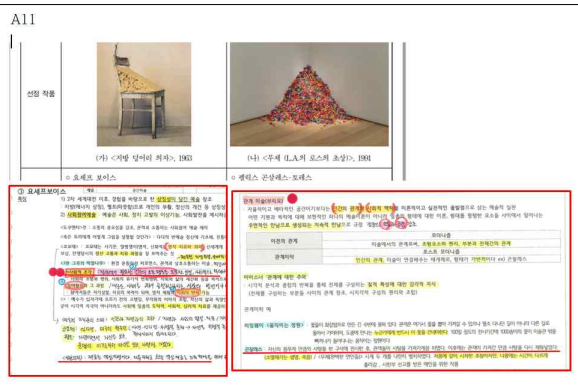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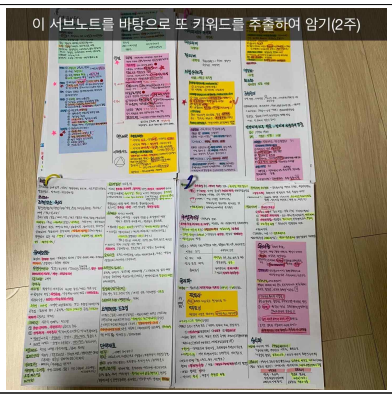
① 본인에게 잘 맞는 책에 단권화하면서 공부 > 여러 강사의 기본이론, 심화이론 책 등을 바탕으로..
/ 개인적으로 글씨가 너무 크면 집중도가 떨어져서..작가별로 분류가 잘 되어있고, 목차가 페이지별로 명확한 '남미술'책을 선택하여 단권화 했습니다. (표현은 위상선생님책 /근데 초반에 공부는 위상기본.심화로 공부하였었음)

②단권화 내용을 제 스타일에 맞추어 hwp편집> 인쇄
(8pt / B5 사이즈 .. 작게 보는 것 좋아해요)

③가끔 도판 추가







④모의고사, 필독서 30여권(발췌독), 교과서, 사전 5종, 네이버 백과사전을 바탕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매일 손으로, 또는 타이핑으로 써서 붙여넣기
⑤완성 후 노란형광펜 ~ 주황 ~ 빨강 순으로 덧씌워가며 계속 읽고 암기, 백지 쓰기
⑥형광펜 위에 색연필로 시험장에 암기해갈 내용을 동그라미 치며 다시한 번 읽기, 청킹암기> 스티커를 붙여가며 마무리 정리 =. 빨강미니스티커는 중요표시, 초록/파랑 스티커는 출제 예상 > 최종으로 따로 A4에 키워드만 모두 정리하여 50장(100쪽)가량 시험장용 서브노트를 한번 더 만들어 시험 시작 종칠때까지 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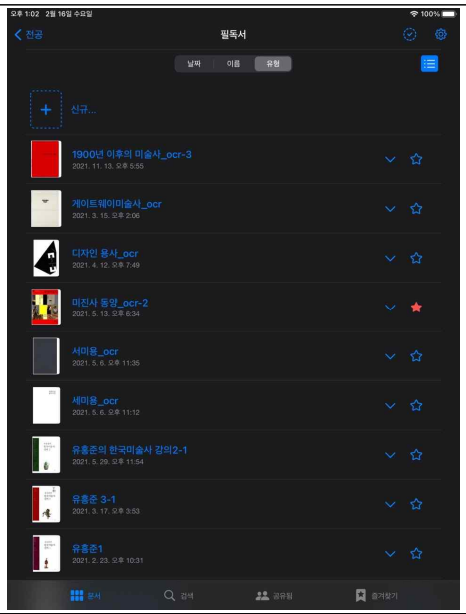
+ 기출은 따로 전년도 분석하여 안나온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고자 표를 만들었습니다. 강사분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중간중간에 빨간밑줄 두 줄으로 년도와 함께 기출을 표시하여 빈도를 확인했습니다 (장지연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공부방법)
개인적으로 이 시험은 맥락파악과 키워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빠른회독을 위해 키워드 위주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 도판은 거의 없음. 어느정도 많이 보이는 도판은 떠올리면서 공부하거나, 모르면 찾아보기 (사진찾아넣느라 시간낭비 하지 않기,,)

♥이해-암기-반복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패턴)
단권화를 만드는 초반과정에 이해를 중시했으며, 서브노트를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이 서브노트를 반복하여 연습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브노트만 더 암기했다면.? / 작은 실수를 덜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완벽하게 시험장에 갈 수없는 것이 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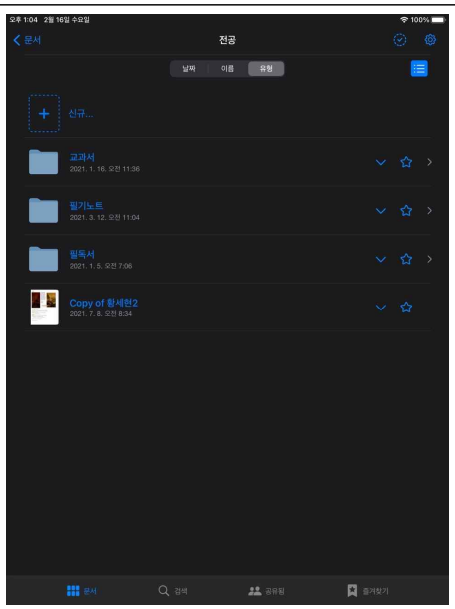
필독서

- 필독서는 날을잡고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읽고싶은 부분이 있으면 읽음) 그렇지만 제가 필독서를 주되게 활용한 방법은 예를 들어.. ['요셉보이스'가 문풀에 나오면 '요셉보이스'를 필독서, 교과서, 용어사전을 스캔한 pdf, ocr 목록에 검색하여 관련 부분을 읽고, 서브에 추가했습니다.] 필독서를 읽되, 요령있는 방법으로의 습득을 추천드립니다. (필독서는 읽어두려면 위상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때나, 대학원1-2학년때 읽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필독서를 못읽었다는 불안감에 개인적으로 생각한 방법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개개인 성향에 따른 것이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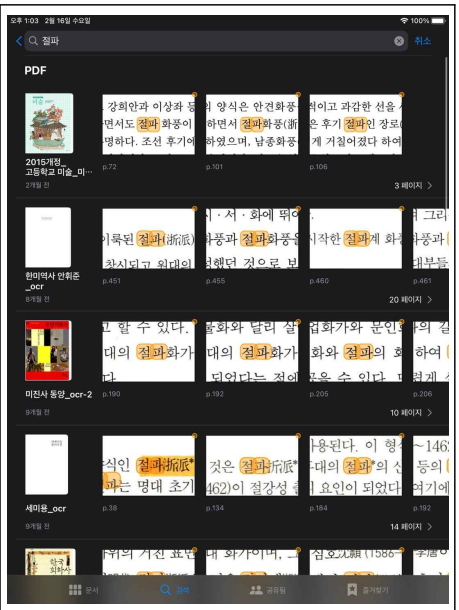
남미술기반 도서가 있었고(학예공부할 때 사둔 것),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 도서를 추가하여 봤습니다.



굿노트 필독서목록 (밑에 더 있었음)



교과서, 필기노트, 필독서를 담아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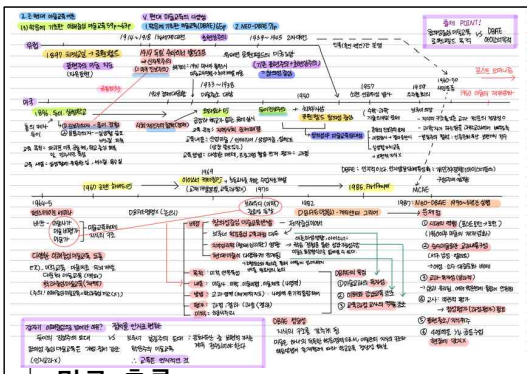
필독서기반 ocr추출 > 공부, 서브추가

***필독서 스캔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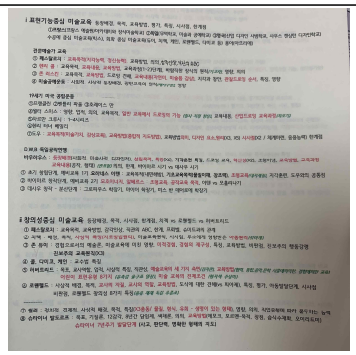
회기근처 스캔집> YESCAN (저렴하고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권당으로 하면 1권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당 계산이어야 책 많이 스캔할 수 있어요. 예스캔 기본 요금 + 시간당요금추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습니다 ..!

미교



└ **미교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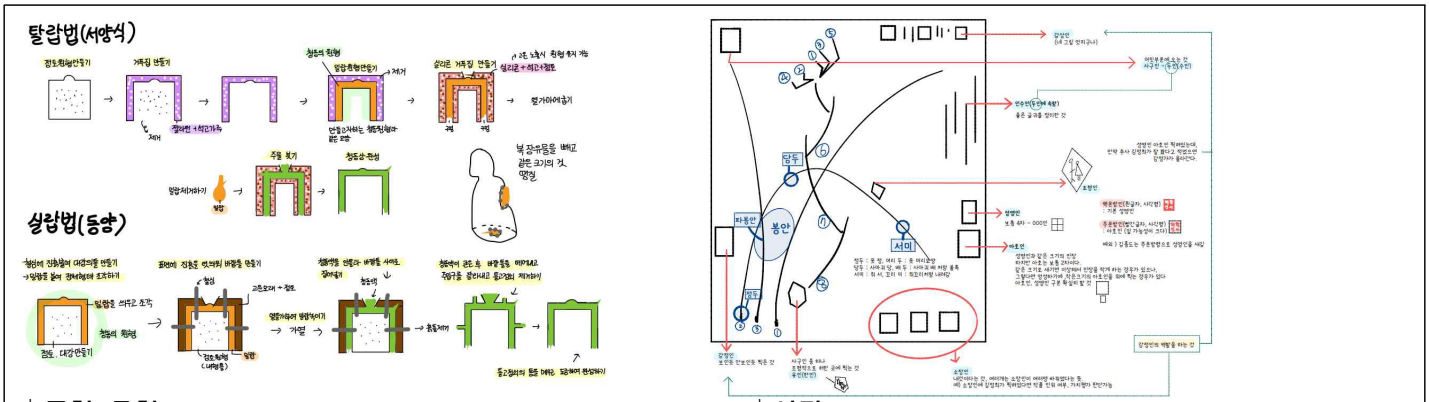
└ **미교 키워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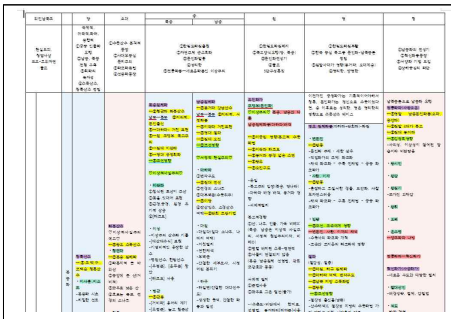
- 장지연교수님 강의 정말 좋은데..!! 판서가 조금 어려워서 굿노트(♥)를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 정리해두니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거나, 가끔 지엽적인 것에 빠질 때 확인하기 좋았습니다. 미술교육론은 교수님을 따라서 1년 쭉 공부하였습니다.

-가끔 새로운 내용이 알고싶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는 타강사님미교론을 들었습니다. 맥락적으로는 좋았으나, 초수가 바로듣기에는 어려워서 후반기에 전체정리겸 가볍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교육과정파트는 따로 듣지 않고 남겼습니다. (완강=합격은 아니니까 인강을통한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하긴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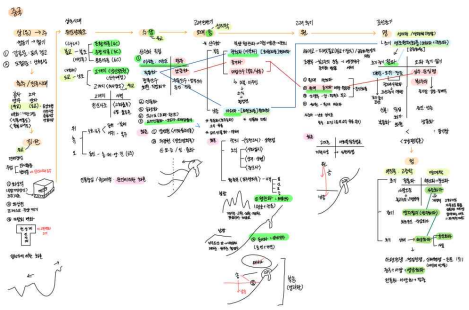
>문풀은 앞서 설명드린 강사님들대로 과목상관없이 쭉 들었습니다 / *초반상태 : 듀이, 치젝 아무도 모르던 쌩노베.*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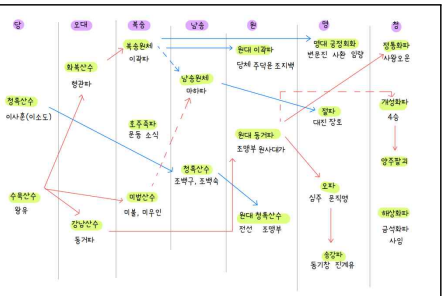

탈랍법(서양식)
실랍법(동양)
서미
봉안
마폭판
암두
암두
암두



중국회화흐름도(그림형식,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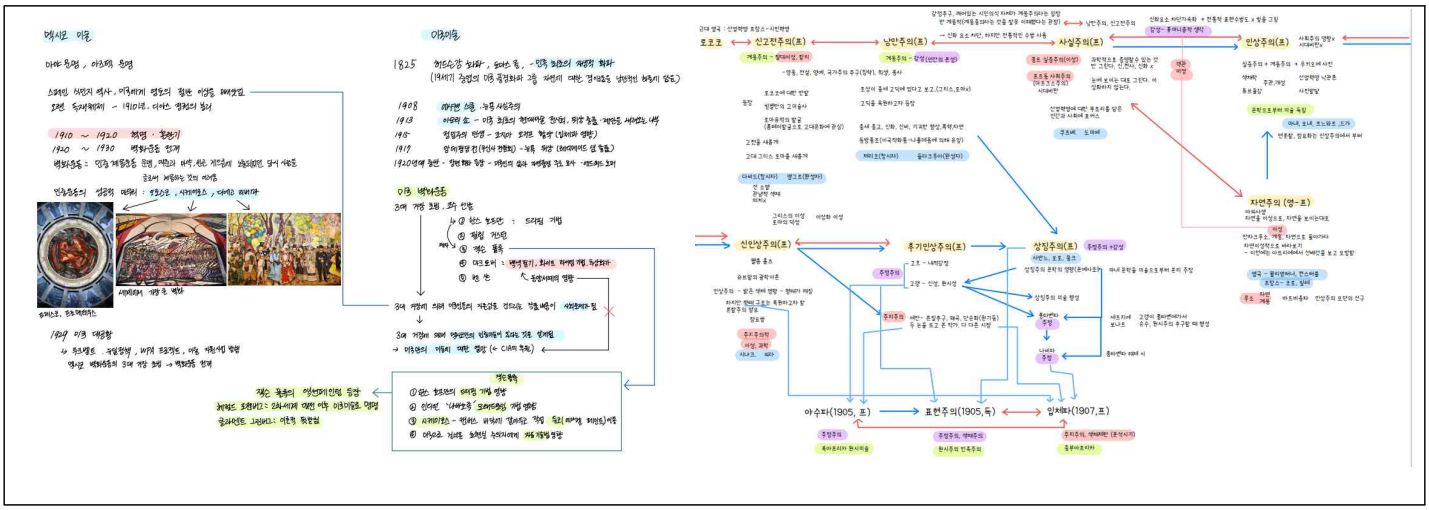


중국 흐름도(전체, 역사포함)



중국 화파 흐름

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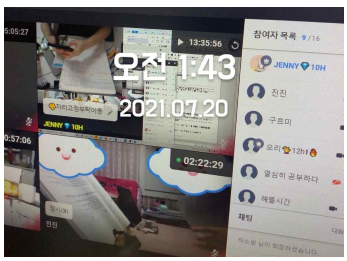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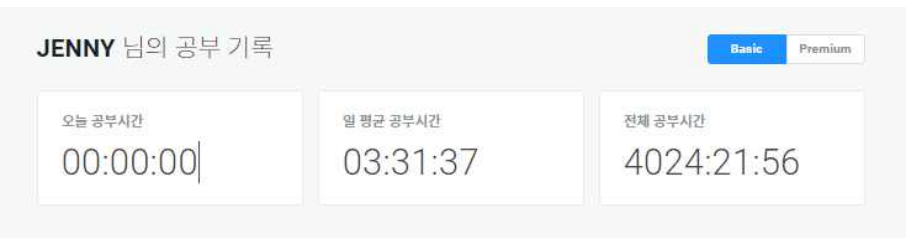
-맥락파악 판서는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위상커리를 열심히 듣고 , 타강사님 서미도 함께 들었습니다.
(고전쪽 위주로 듣고 현대는 따로 안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미는 비교적 대학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또, 남미술 유튜브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서미는 필독서 출제비율도 높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서브기반 artsince1900, 진중권 서양미술사를 바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스터디

1. 구루미 캠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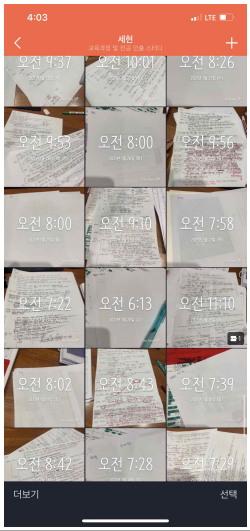
> 저의 동기부여가 되어줬던 구루미 캠스터디! 오픈방인 '내일은 없는 도서관'이라는 방에서 임용준비생들, 공시생분들과 함께공부했네요. 실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는게 부담스러웠기도했고.. 혼자 공부하되, 나태해지고싶진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얼굴나오지 않고, 공부하는 손만 비춰지면 돼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임용생들과 방을 꾸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자꾸 그분들의 공부모습을 훔쳐보면서 제 공부에 집중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방일경우 오전 8-9시면 사람이 다 차서, 밤까지 입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접속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접속을 하지 못하면 그날 공부는 망친다는 생각에 아침마다 눈이 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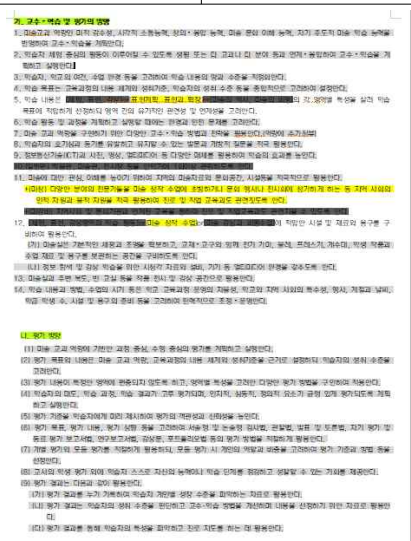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와중에도 '10시간 스파르타반'에 참가하여 10시간을 못채우면 서로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분들과 돈독하게 공부하고, 서로 시험일에는 챙겨도 주면서, 아침에 누가 안일어나면 연락해서 깨워주는방식으로 공부해서 외롭지 않고 든든했습니다. 서로 따뜻한 말들도 나누고.. 응원도 해주면서 얼굴은 모르지만 덕분에 즐겁게 공부했던 것같네요. 여러분도 동기부여와관련한 스터디를 운영하실텐데, 서로 힘든 과정을 겪는만큼 서로서로 응원해가면서 공부하시면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일평균 공부시간은 접속안해서 평균 잘못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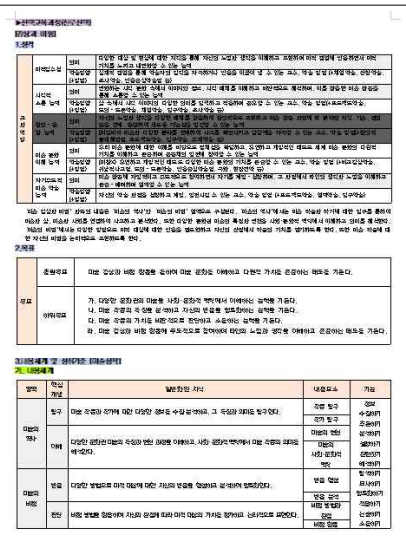
2. 교육과정, 전공인출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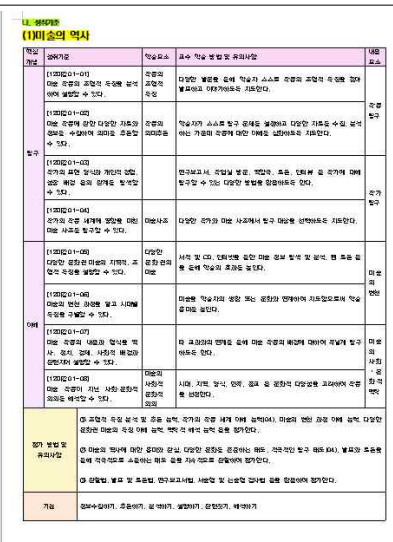


오전에 일어나서 인출 전에 백지를 한 장 찍고, 교육과정 백지후, 또 한 장을 찍어 인증했습니다. 스터디장이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었던것같아요. (너무 정신없을땐 성실히 못한적도 많았어요)

교육과정은 너무 안외워져서 힘들었는데 안외워지면 안외워지는대로 백지쓰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언젠간 외워지겠지 싶은마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하다보니 교육과정이 항상 부담이었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아침에 해치워(?)버리고 그 이후에는 마음편하게 전공,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밤까지 미루다보면 밤까지 괜히 '교육과정해야하는데,,'하는 마음으로 계속 찝찝했어요. 표를만들어서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도 문서편집해서 만들었어요. 초록색 암기펜을 이용하여 지워가며 외웠습니다. 만드니까 17p나왔어요.

3. 필독서기반 5-6 위상 문제분석 스터디

위상 직강에서 문제를 풀고, 수업 후 남아서 필독서 기반 문제 분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만약 모의고사에서 00작가가 지문에 언급되거나 관련도판으로 나오면, 00 작가가 나오는 사조를 정하거나, 00작가의 이외작품을 찾아보는 등 내용확장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5-6 기출 + 기출변형문제) 모두 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스터디에서 선생님들과 초수에 모두 좋은 결과 얻어서, 괜찮은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이때 필독서를 미친듯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다다이즘 나올 줄 알고 정리한 페이지..

	이런식으로 개인이 몇장 정리해오면, 수업끝나고 서로 읽어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

2차

2차에 무슨시험을 치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저는 1차 끝나고 2차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아예 2차 정보가 없어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실 분들을위해 조금 자세히 적어봅니다.

(2차 때 시험불안이 있으신분은 '인데놀'의 힘을 얻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저혈압은 주의해주시고.. 저는 수업실연날 하루 처방받아 먹었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 불안증이 심해서 1차 시험 쉬는시간에 운 사람..;)

수업실연

19.33/20

위상2차 만점반수강(실연+면접) > 현직교사선생님들이 오셔서 평가해주심. 매우 도움되었음. 터닝포인트

시험 과정 : 심사위원 5명 (인천기준)

인천 기준 지도안이 없는 지역이라, 문제를 받아보고 20분 후, 수업 구상을 하여 바로 20분 수업실연을 합니다.

실연 20분전에 구상실로 입장> 시험,구상 > 바로 20분 실연

비지도안 지역은 타지역과달리 수업을 1시간정도 구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숙지하고, PCK를 확인하고, 발문을 생각하다보면 정말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집니다.

연습과정 :

- 비지도안지역은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저는 만능틀을 만들었습니다. 동기유발의 매체, 방법, 활동 선정> 전개1,전개2의 주된 활동에서 해야하는 활동 *(ex.태블릿 PC유의사항이 꾸준하게 기출되었기에 '다함께'유의사항- 다른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함께 사용한다, 깨끗하게 사용한다)* 등의 발문을 미리 외워서 갔습니다. 수업실연은 연습을 많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실기학원을 다니는 길이나, 밥먹을 때 수업실연 영상을 많이 보고 실전감각도 익혔습니다.
- 스터디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00공고'에가서 실제 수업실연+면접 세트를 연습하고 왔습니다. 학교 책상배치 자체를 시험장으로 배치하여 연습하였습니다. 실전형 연습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사~마무리까지 모두요

-실기가끝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시책(교육계획)을 많이 외웠습니다. 시책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수업실연에 곁들이고자 하였습니다.

- 채점표를 만들어서 연습(문서로 뭔가를 하는게 습관이 되어있어서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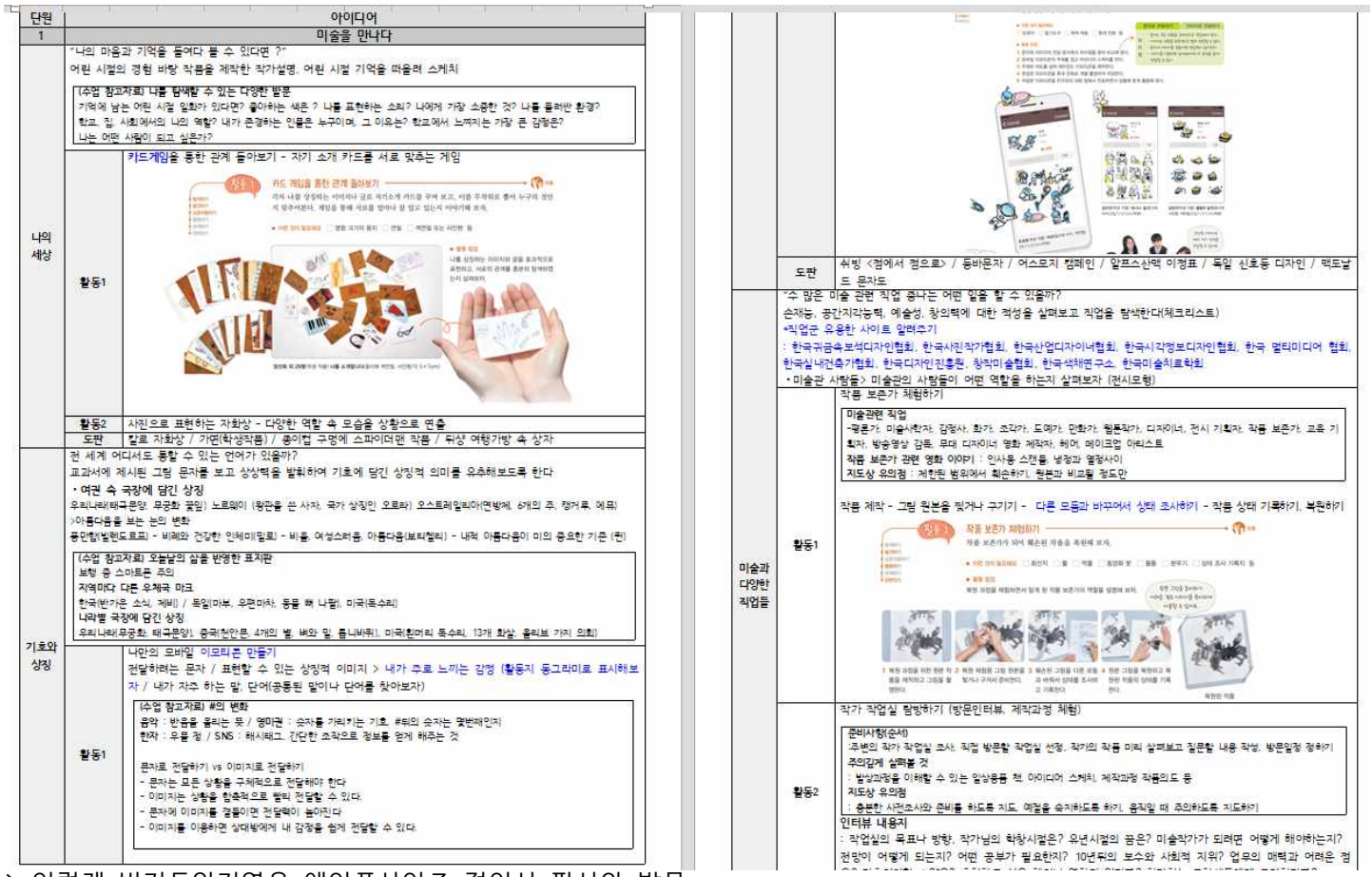
이 채점표를 바탕으로 놓치는 부분 없도록 꾸준히 연습하였어요. (1차 결과 발표전 주 3~4회)

평가자 성명 :

형식	내용		○/X/…
조건충족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평가방법 / 차시	예관찰법 사용시 - 체크리스트로, 평가할 언급해주기	
지도시 유의사항	지도시 유의사항1		
	지도시 유의사항2		
	지도시 유의사항3		
PCK	반응중심 학습법	반응형성 - 반응 명료화 - 반응심화 - 정리 및 발전 -반응심화 : 관련 작품 탐색 / 새로운 대상, 현상 제파악 / 표현 활동과 연계	
	창의적 문제해결법	문제인식 - 아이디어 탐색 - 아이디어 정교화 - 아이디어 적용 - 종합 및 재검토 -아이디어 탐색: 다양한 사고(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 -아이디어 정교화: 아이디어 시각화를 위한 스케치, 최선의 선택을 하고 개념도, 보완 -아이디어 적용: 정교화된 아이디어를 표면 활동에 적용하는 단계 -종합 및 재검토: 반성 평가, 새로운 가능성 탐구	
	귀납적 사고법	문제인식 - 관계 탐색 - 개념 발견 - 개념적용 - 정리 및 발견 -관계 탐색: 관찰, 탐색, 학습 주제 명확히, 자신의 의미와 언어를 다른 학생과 대비 -개념 발견: 탐색한 사실을 근거, 상호 관계를 찾아 규칙성 발견, 용어의 정의 -개념 적용: 원리를 다른 작품이나 상황에 적용 확장 응용	
	토론법	도입 - 의제 점검 및 공유 - 진행방법 결정 - 진행 - 정리 및 발견	
	문제중심 학습법	문제인식 -문제 확인 - 자료수집 - 해결안 도출 - 발표 - 정리, 평가 -문제 확인: 생각, 지식(사실), 학습 과제, 실천계획 점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소집 개별 학습 -해결안 도출: 모둠별로 해결안 도출 -모둠별로 해결안 발표: 프레젠테이션 발표 -정리 및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	
	프로젝트 학습법	주제선정 - 계획 수립 - 자료,수집, 분석- 실천, 제작 - 발표 - 평가 -주제 선정: 공동체으로 관심 있는 주제,선정, 과제 명료화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의 계획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도출 제작 발표 -평가: 교사와 학생이 범상적으로 성찰하고 평가	
시간분배	동기유발 / 전개 1 전개2 / 정리		
동기유발	동기유발 방법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동기유발 방법 사용하기 (선생님의 경험 스토리텔링, 여행, 연예인 이야기, 전시학습, 마인드맵 해보자, 한마디 적어보기, 사진 전승해보기, 카드게임 등) 참신한 동기유발 방법 사용하기 (퀴즈, 노래, 전시학습의 과제)	
	동기유발과 학습목표의 일치도, 연결성 (더 배우고 싶어졌나요? 동기유발과 관련해서 학습해 볼까요? / 주제를 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학습 목표	성취기준과의 일치도, 적절한 학습 목표 (인지, 심동,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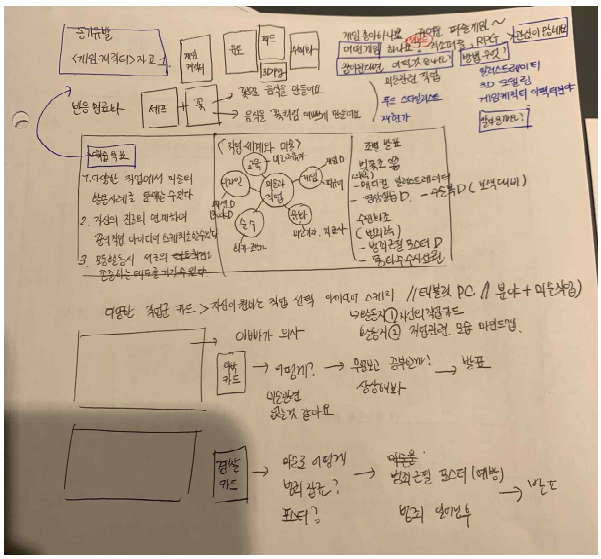
전개1	다양한 매체의 사용	영상, 사진, 활동지, PPT, 태블릿 PC, 학생실물, 다른 학생의 예시작품 메모형, 하이퍼링크, 미술노트, 책가노트, 그림카드, 구글 문서, 정보도, 퀴즈) *유튜브, 밴드형, 밴드, 인공지능 챗봇도*	
	전개 중의 동기유발	퀴즈, 끝말잇기, 행맨, 경험의 환기 등	
	다양한 발상방법 적절한 안내	PMI기법, 마인드맵, 브레인라이팅, 브레인…스토밍, 고든법, 유생사고법 SCAMPER, 시네틱스, 속성열거법, 강제결합법, 비주얼 싱킹 등	
전개2			
상호작용	조별 특징, 분배의 적절도 (참한조 / 중간진도 / 못한 조) (의견을 다투는 조, 무기력한 조, 성격이 급한 조 등등)		
	비언어적 표현 (생생조등 박박, 연기불신당 / 중중, 주목해주세요)		
	다양한 칭찬의 종류 (잘아요, 좋아요, 굿, 나이스, 슬쿠씨, 독독해, 훌륭해, 감동받어, 최고야 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X 성찰은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횟수 학생 중..수 (다문과 포함) :		
	상호작용을 통한 내용설명 (내용을 교사가 설명하기보다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 스캐폴딩)		
	동선 (순회 지도시, 이동경로의 넓이)		
	경청의 속도 (천천히)		
	피드백의 적절성 (내용과의 일치도)		
내용	내용의 적절성★		
	학습 단원명과 주제 / PCK에 적절한 수업인지		
	수업 중 예시의 적절성 / 내용의 전문성, 개념과 특징의 정확성 / 풍부한 이론적 내용		
판서	학습목표, 단원명 명시 / 글씨 크기와 칠판 사용의 비례 / 판서태도 (등돌리지 않기) 내용 배치의 적절성 /		
태도	경어체의 사용 / 목소리 크기와 발성		
	초반 인사, 마무리 인사 / 시선의 처리 *(구석응시 X)* / 진행의 매끄러움		
	학습자의 수준 고려, 적절한 용어의 사용		
기타	전시학습의 상기 등		
총평			

-교과서 서브노트 : 교과서 활동이나 지도안을 참고하여 문제 예상, 모의문제도 만들기, 동기유발 아이디어얻기, 영역별 언급해야할 팁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가끔 동기유발 기억안날 때, 교과서 활동 사용하면 자연스러웠습니다.



단원	아이디어
1	미술을 만나다
나의 세상	"나의 마음과 기억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 어린 시절의 경험 바탕 작품을 제작한 작가설명.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스케치 (수업 참고자료) 나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발문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 일화가 있다면? 좋아하는 색은 ? 나를 표현하는 소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를 둘러싼 환경? 학교, 집,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학교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활동1	카드게임을 통한 관계 들여보기 - 자기 소개 카드를 서로 맞추는 게임
활동2	사진으로 표현하는 자화상 - 다양한 역할 속 모습을 상황으로 연출
도판	칼로 자화상 / 가면(학생작품) / 공이업 구멍에 스파이더맨 작품 / 뒤샹 여행가방 속 상자
기호와 상징	전 세계 어디서도 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을까?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문자를 보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호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유추해보도록 한다 • 여권 속 국장에 담긴 상징 우리나라(태극문양, 무궁화 꽃잎) 노르웨이 (왕관을 쓴 사자, 국가 상징인 오로라) 오스트레일리아(면방패, 6개의 주, 캥거루, 에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의 변화 풍만함(벌렌도르프) - 비례와 건강한 인체미(밀로) - 비율, 여성스러움, 아름다움(보티첼리) - 내적 아름다움이 미의 중요한 기준 (틴)
활동1	나만의 모바일 이모티콘 만들기 전달하려는 문자 /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 >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 (활동지 동그라미로 표시해보자 / 내가 자주 하는 말, 단어(공통된 말이나 단어를 찾아보자) (수업 참고자료) #의 변화 음악 : 반음을 올리는 #, 영미권 : 숫자를 가리키는 기호, #뒤의 숫자는 몇번째인지 한자 : 우물 정 / SNS : 해시태그, 간단한 조작으로 정보를 쉽게 해주는 것 문자로 전달하기 vs 이미지로 전달하기 - 문자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이미지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다. - 문자에 이미지를 결들이면 전달력이 높아진다 - 이미지를 이용하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도판	쉬빙 <점에서 점으로> / 등바문자 / 이스모지 캠페인 / 알프스산맥 이정표 / 독일 신호등 디자인 / 맥도날드 문자도
미술과 다양한 직업들	"수 많은 미술 관련 직업 중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손재능, 공간지각능력, 예술성, 창의력에 대한 적성을 살펴보고 직업을 탐색한다(체크리스트) *직업군 유용한 사이트 알려주기 :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한국 멀티미디어 협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창작미술협회, 한국색채연구소, 한국미술치료학회 • 미술관 사람들> 미술관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전시모형)
활동1	작품 보존가 체험하기 미술관련 직업 -평론가, 미술사학자, 감정사, 화가, 조각가, 도예가, 만화가, 웹툰작가, 디자이너, 전시 기획자, 작품 보존가, 교육 기획자, 방송영상 감독, 무대 디자이너, 영화 제작자,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작품 보존가 관련 영화 이야기 : 인사동 스캔들, 냉정과 열정사이 지도상 유의점 : 제한된 범위에서 최선하기, 원본과 비교될 정도만 작품 제작 - 그림 원본을 찢거나 구기기 - 다른 모둠과 바꾸어서 상태 조사하기 - 작품 상태 기록하기, 복원하기
활동2	작가 작업실 탐방하기 (방문인터뷰, 제작과정 체험) 준비사항(순서) -주변의 작가 작업실 조사, 직접 방문할 작업실 선정, 작가의 작품 미리 살펴보고 질문할 내용 작성, 방문일정 정하기 주의깊게 살펴볼 것 : 발상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용품 책, 아이디어 스케치, 제작과정 작품의도 등 지도상 유의점 :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하도록 지도, 예절을 숙지하도록 하기, 음식일 때 주의하도록 지도하기 인터뷰 내용지 : 작업실의 목표나 방향, 작가님의 학창시절은? 유년시절의 꿈은? 미술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10년후의 보수와 사회적 지위? 업무의 매력과 어려운 점

> 이렇게 비지도안지역은 에이포사이즈 접어서 판서와 발문 생각 후,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칠판모양 모둠모양을 그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멘트들을 간단히 적어두었어요
저는 수업실연할 때 이걸 적으면서 외워서 (사진은 이번 시험 내용 아님), 거의 안보고 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업실연 연습을 엄청나게 했고(과하다 싶을정도로) 집에서 따로 칠판사서 연습했어요. 비지도안지역이 오히려 더 많은 실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면접

46.83/50

1차가 끝나고 실기 + 수업실연에만 몰두했습니다. 면접은 1차 발표 후, 준비해도 된다고 하셔서 늦게 준비하였는데 .. 여유가 있으시다면 미리 이론공부정도는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면접 시험이 공부를 해야하는 과목인줄 모르고 아예 놓고 있었네요..

예상하셨듯이, 역시 면접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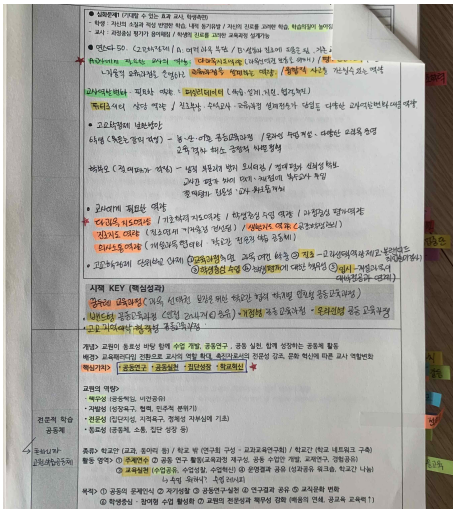
1차합격발표가 난 후에, 뒤늦게 준비하여 만들고 미친 듯이 외웠습니다. 12월 31일~ 17일까지는 실기시험 준비로 바쁘고, 끝나고 나면 7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급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 어렵지않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시험방법 : 20분 / 구상형 2문제구상 + 현장에서 즉답형 2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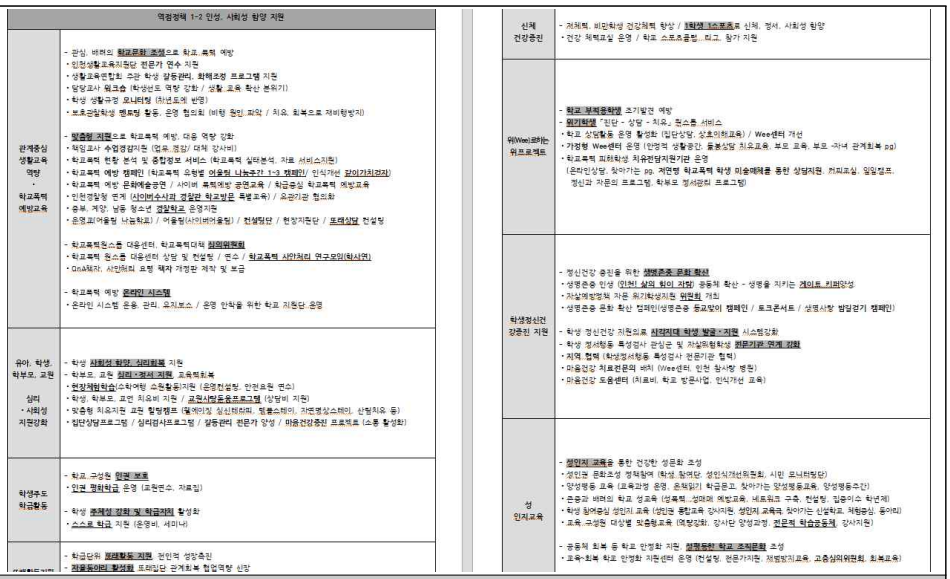
올해 구상형, 즉답형 합쳐 20가지 가짓수를 제시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역량 합치면 25개?

인천이라 시책을 달달 외웠고, 모의고사를 만들어 풀 때, 꼭5가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 규칙을 정해서 연습하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습니다. 20분에 (20문제 답변시간 + 즉답형 구상시간) 마침이어서 거의 쉴새없이 말해야 하긴 했습니다. 나중엔 내가 무슨말을 하고 있는건지 모를정도로 답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마지막에 의자도 못집어넣고 나왔네요 ^^.... 이러시면 안됩니다..*

>면접과 수업실연전, 새벽4시에 샵에가서 머리를 단정히하고, 마스크를 끼지만 화장도 다 하고, 면접복장으로 깔끔하게 하고 갔습니다.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 저는 하고갔어요)



인쇄후 모의 문제 할때마다 추가 면접레시피 + 연스타 (89쪽)



역점정책 1-2 안성, 사회성 함양 지원	
관계중심 생활교육 역량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관심,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 폭력 예방 • 인천생활교육지원단 전문가 연수 지원 • 생활교육연합회 조직 학생 갈등관리, 화해조정 프로그램 지원 • 담임교사 **워크숍** (학생상담 역량 강화 / 생활 교육 확산 분위기) • 학생 생활규정 모니터링 (차년도에 반영) •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활동, 운영 협의회 (비행 · 폭력 · 피해자 / 치유, 회복으로 재비행방지) •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수업경감지원 (업무, 징계/ 대처 감사비) • 학교폭력 현황 분석 및 종합방보 서비스 (학교폭력 실태분석, 자료 서비스지원)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교폭력 **유형별 어울림 나눔주간 1-3 캠페인**/ 인식개선 **문아가치경과**) •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공연** / 사이버 폭력예방 공연교육 / 학급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인천경찰청 연계 (**사이버수사과 경찰관 학교방문** 폭법교육) / 유관기관 협의회 • 유튜, 게임, 넘등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지원 • 운영교(어울림 나눔학교)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 천설팀단 / 현장지원단 / **또래상담** 전설팀 - 학교폭력원스톱 대응센터, 학교폭력대책 **참의위원회** •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상담 및 전설팀 / 연수 /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학사연)** • Q&A체자, 사안처리 요령 책자 개정판 제작 및 보급 -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시스템** • 온라인 시스템 운용, 관리, 유지보수 / 운영 만족을 위한 학교 지원단·운영
유아, 학생, 학부모, 교원 심리 · 사회성 지원강화	- 학생 **사회성 함양, 심리회복** 지원 - 학부모, 교원 **심리 · 정서 지원**, 교육역량회복 • **현장자원학습**(수학여행, 소풍활동지원 (운영지설팅, 안전요원 연수) • 학생, 학부모, 교원 치유비 지원 / **교육방문유형프로그램** (상담비 지원) • 맞춤형 치유지원 교원 힐링캠프 (**체험미술, 심신치유리, 명흥스테이, 자연명상스테이, 산림치유** 등) • 집단상담프로그램 / 심리레샤프로그램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 **마음건강증진 프로젝트** (소통 활성화)
학생주도 학급활동	- 학교 · 구성원 **만족 · 보호** • **인권 평화학급** 운영 (존중연수, 자료집) - 학생 **주제성 강좌 및 학급자치** 활성화 • **스스로 학교** 지원 (운영지, 세미나)
[illegible]	- 학급단위 **또래활동 지원**, 전인적 성장증진 - **마을동아리 활성화** 또래집단 관계회복 협업역량 신장
신체 건강증진	- 체육회, 비만학생 건강체력 향상 / **3학생 1스포츠**로 신체, 정서, 사회성 함양 • 건강 체력교실 운영 /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참가 지원
위(Wee)클라는 위프로젝트	- **학교 부적응학생** 조기발견 예방 • **위기학생** (진단 - 상담 - 치유, 회스톤 서비스 • 학교 상담활동 운영 활성화 (집단상담, 상호의하교육) / Wee센터 개선 • 가정형 Wee센터 운영 (인턴제, 상담공간, 동행상담 치료효과, 부모 교육, 부모 -자녀 관계회복 pg)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전담지원기관 운영 (온라인상담, 찾아가는 pg, 게연형 학교폭력 학생 미술에해를 통한 상담지원, 컨피코상, 일일쉼표, 정신과 자문의 프로그램, 학부모 정서관리 프로그램)
학생정신건강증진 지원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생명존중 인성 (**인권 삶의 힘이 가정**) 공동체 확산 - 생명을 지키는 **게이트 키퍼**양성 • 자살예방정책 자문 위기학생지원 **위원회** 개최 •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생명존중 동교맞이 캠페인 / 토크콘서트 / 생명사랑 방랑기 캠페인) -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료 **사전지대 학생 발굴 · 지원** 시스템강화 • 학생 정서함등 특성검사 · 분임은 및 자살위험학생 **전문기관 연계 강화** • 지역 협력 (학생정서함등 특성검사 전문기관 협력) • 마음건강 치료전문의 배치 (Wee센터, 인천 참사랑 병원) • 마음건강 도움센터 (치료비, 학교 방문사업, 인식개선 교육)
성 인지교육	- **성인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문화 조성 • 성인권 문화조성 정책참여 (학생, 참여단, 성인식개선위원회, 시민 모니터링단) • 양성평등 교육 (교육과정 운영, 온책일기, 학급문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주간) • 존중과 배려의 학교 성교육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네트워크 구축, 전설팀, 집중이수 학년제) • 학생 참여중심 성인지 교육 (성인권 **동입교육** 강사지원, 성인지 교육과 **장이가는 산성학교, 저탄장상, 동아리**) • 교육 · 조성등 다양별 맞춤형교육 (여장지원, 장사단 양성과정, **전문의 학습동호회**, 강사지원) - 공동체 회복 등 학교 안정화 지원, **생명동반 학교 조직문화** 조성 • 교육 · 회복 학교 안정화 지원센터 운영 (컨설팀, 전문가지원, 폭법방지교육, 고충심의위원회, 회복교육)

인천 역점정책 키워드 정리 암기용

건강

가끔 한시간씩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마지막에 12월 스터디원분들과 가장 차이났던게 무엇이냐면 '체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앉아있다보니 무릎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수업실연 연습을 위해 구두를 신고 조금 걸었더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갓 태어난 송아지마냥..) 오리발건염인지. 무릎염증이 심해서 시험전날에 급하게 전기충격받고 시험치러 갔습니다. 아직도 도수치료 받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실기

실기시험 27.33/30

1. 인천실기의 방향

-> 전공은 작년부터 공통주제로 변경되면서, 기출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저도 갈피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디자인스타일로 나올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하지만 올해 기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말그대로 공통주제이다보니, 서양화, 디자인, 조소, 동양화가 모두 재료의 제약없이 공평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조소전공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인천은 소묘가 공통이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전공보다 소묘시험에서 변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매년 소묘기출이 바뀌는 '공통 소묘' 과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묘를 연습해가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소묘 / 정물소묘 / 인체소묘 / 인체부분 등 소묘 자체를 잘 해야 유리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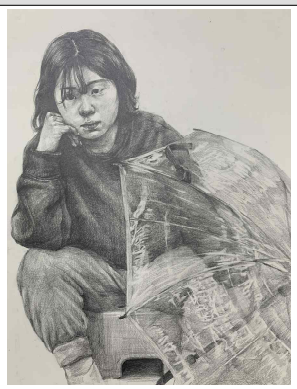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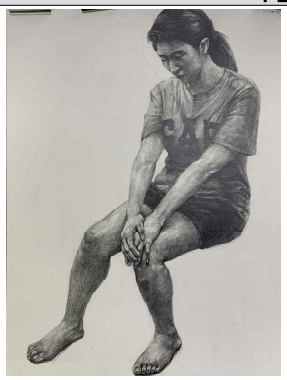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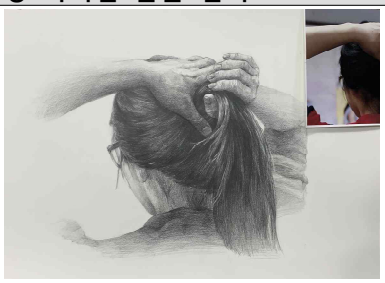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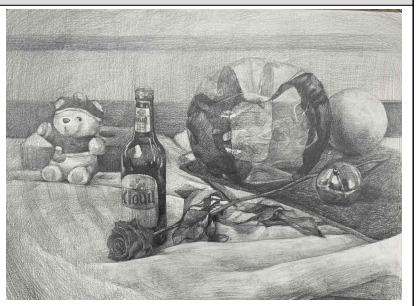
2. 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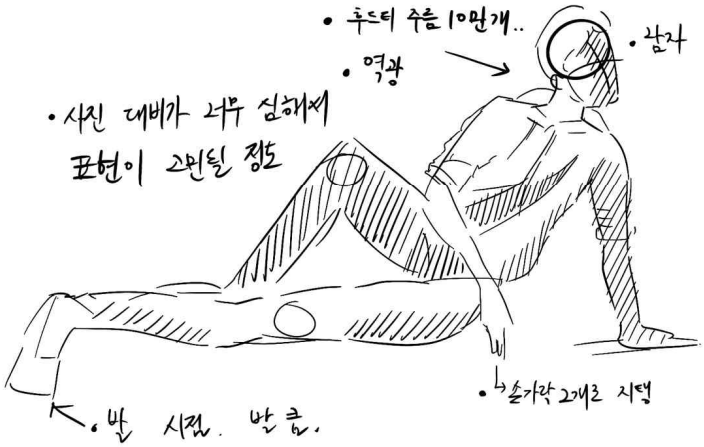
실기 준비기간 : 2020 10월말~12월말 (주1~2회) / 1차시험끝나고 11월말~2차시험전까지 약 2달 (주4회) 10시간씩 +a
> 총 4달 이내? 이네요. 이외 평달에 실기 다니지 않았습니다. (1차를 합격해야 2차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은 홍대 '써니 미술학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 소묘 실력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노력하면 누구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처음의 제 실기를 올립니다.
저보다 못하는 선생님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실기에 대한 용기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묘학원이 끝나고 집에와서 수업실연 스터디를 하고, 자기전까지 소묘 서브노트를 따로 편집하여 만들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날때마다 소묘를 생각하려 노력했기에 ..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시험장갈때까지 어느정도 끌어올려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묘를 단기간에 올려야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실기 실력 (전공이 조소라 소묘하지 않음)		
		처음 선느낌과 명암 (얼굴은 도와주신 부분이라 잘랐습니다) 지워진 부분이 처음형태> 도움받은 이미지임 (초반에 비례, 크기 하나도 맞지 않음- 간격파악불가) 완성자체를 해본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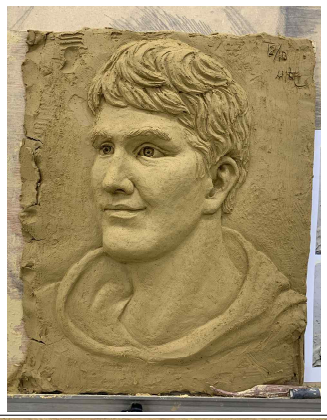
시험장 가기전 끌올 실기			
			

인체소묘 / 부분소묘/ 정물	
끌올을 위한 소묘 서브노트 / 인천 기출	
	
단계별 시범정리 + 내 그림 넣은 자료집 / 인천기출 (종이 너무 미끄러움 / 가로방향)	

3. 조소

- 저는 전공이 조소라 지역을 인천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거주지와도 멀지않고) / 전공이 지역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듯

실기 준비기간 : 대학 전공이라 평달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1차 끝나고부터 일주일에 1번정도 혹은 2번 다녔습니다. 대학입시를 했던 학원에서 이어서 했습니다. 학원은 강남 헤라클레스 조소학원입니다. > 이대가 이번에 부조시험으로 바뀌어서 엿보기도 하고, 전공자임에도 꿀팁을도 많이 알려주시고 1:1지도도 해주셔서 많이 배웠네요. 환조랑 부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환조를 전공했다면, 부조도 학원의 도움을 받아 어느정도 연습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용량 때문에 이미지는 이정도 올립니다.>

		
인천 2022 기출 복기 지문 제시 : 지문을 읽고 느껴지는 느낌?모습?을 표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 *그 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같은 나무 아래로* *...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 곳으로 가네...*		

조건
-3시간
-보따리 사진 이미지 제시 (비단보자기 형형색색) 형태, 개수 등 변형 가능하되, 필수 사용
-밑판 2~3센치 / 높이 10~15
완전고부조;;... 본인은 자도 없었는데..

현장상황
: 조금 불편한 거치대를 줌. 정사각형의 낮은 책상. 의자 , 타이머돌아감
: 손씻는곳 다 있고, 흙 상태 최상이며 (묽은 새 흙보다 좋음. 쫀쫀함) / 밀대 줌

실기 상황
: 책상 낮아서 거치대 주신 것 사용하더라도 불편해서 학원에서 준비해준 책거치대 튼튼한 것 사용하여 편하게 실기함
:세워서 실기 가능하도록하나 판면을 바닥에 붙여 눕혀놓음. 세워서 보는 것과 뉘여서보는 것은 빛의 방향에따른 명암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데... 세워놓는 줄알고 확인을 잘 못해서 아쉬웠음. 조소전공자는 참고.
표현내용
: 뒤를 돌아보며 아련하게 표정짓는 할머니, 뒤에서 바람불어오는 설정, 머릿결 날림표현 / 손 표현 / 한복 표현 / 보따리 2개 들고 있는 것 표현 / 나이테가 그려진 나무 밑동 표현, 나뭇가지에 천이 묶여 휘날리는 것 표현 / 바람표현 손으로 긁어서

마무리

-대충해서 견적봐서 미치기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다양한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고, 나만의 공부법을 찾으며, 줏대있게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열심히 임하되, '영리하고 노련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 (초수에 서브노트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상은 저의 능력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되돌아보면 추억이 되기도하는 후회없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값진 승리 얻어내는 수험생활이 되시길 바랄게요 :)

혹시 필요하신자료가 있는 것 같으시면 연락주세요.(DM)
인스타그램 @se_jenny_ 에서 서브노트 공유하고 있습니다.